

김용민브리핑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전통방식 속성! 최고의 맛은 알싸한홍어	1599-6456, 010-9384-7970 alssahan.co.kr
중고차 사고 팔 때엔 조광래중고차	1800-9538 cafe.naver.com/ckrca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정성농장홍삼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안티요요! 다이어트 소품물은 비타샵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형이 쏠! 장 청소는 미궁장사랑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맛집 창업전문컨설팅은 몬스터쉐프	010-4826-7784 facebook.com/monstershef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풍무양고기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내피알	032-519-4800 nepr.co.kr
국가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한 다크 자백	10월 13일 대개봉 goo.gl/IQzIap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ட담채김치	1544-4586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메이드바이어스	010-5633-6036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전창걸의새싹떡콩차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좋은사람과플라워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와우전복	010-2443-0818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연지연곰탕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오폐지션 파티’의 정명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야당이 정권을 상대로 비판을 날 서게 하면 막말, 국정 발목잡기, 운동권 정당 과거 습성의 재현 운운하며 견제를 무력화합니다.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같은 수구부패언론이 그렇습니다.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당입니다. 야당을 뜻하는 영어 표현도 Opposition Party입니다. 2006년 1월 당시 야당 대표도 “야당은 영어로 ‘오폐지션 파티’다. 나라를 위해 확실히 반대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다.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야당 대표는 박근혜 씨입니다.

2016년 과반을 넘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만 현재 야당은 집권 세력에게 더 이상 견제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그제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3번 등 야당이 수없이 많은 업무방해를 했지만, 저는 헌정 사상 5년8개월을 근무하는 최장수 정무직 기관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국가유공자로 특별 채용된 경위를 물으니 “아버지에게 아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3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MBC의 대주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국정감사에서 “(좌파 성향의 판사가 했으니) 민주당이 재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KBS 고대영 사장은 세월호 사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KBS 보도에 외압을 가했는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우리의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보도본부장을 향해 “대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두 야당 의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야당은 앞으로 오폐지션 파티를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욕 안 먹으면서, 정권의 적폐에 힘입어 적당히 점수 따는 현재의 태세로 과연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도 말입니다. 저들이 박근혜와 색채를 달리하며 진보적 아젠다까지 선점한 전혀 다른 결의 후보를 낸다면, 그러면서 박근혜와 차별성을 나타내면 그 때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미애 대표, 문재인 전 대표가 표한 결기처럼 한강물에 뛰어들 각오로 입법부 집권 야당의 면모와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악한 정권과 장악당한 언론의 간계를 돌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장이 된 정세균 2008년 당시 민주당 대표는 “한 나라당이 10년 야당 하더니 이렇게 무능해졌다”며 한탄했습니다. 한나라당 이름에 민주당을 넣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오늘입니다. 야당의 분발을 바랍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0월 12일(수) 1부 | 최순실 밍보인 문체부 국과장 강제퇴출

[오프닝] 박승춘 고영주 고대영의 야당 무사·예삿일인가?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한국]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겨레] 최순실에 찍힌 공무원 안 잘리자 박근혜가 나서

-[한겨레] 최순실 딸 이변엔 이대 의류학과 ‘학점특혜’

-[동아]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취업사기 피소 당해

-[서울] CJ, 'GM 미생물'로 만든 설탕 대량 유통

[뉴스듣기능력평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논란 관련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통일외교전문기자

-미국, 손바닥으로 MD가리기·중러 "좌시 않겠다" 엄포

-미국 대선 2차 TV토론 후 여론조사·트럼프 소폭 상승세

[경제의 속살] 이원배 민중의소리 기자

-갤럭시 노트7 사실상 단종이 한국 기업들에 주는 교훈

-노벨 경제학상 발표, 성과주의와 민영화에 일침 날려

[공화국 논평] "지방 죽었다"는 박원순에 대한 중대 조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물 위에

한국일보 “문재인·박원순 지지 인사 배제해야”

한국일보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존했음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문화정책에 밝은 한 예술계 인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이렇게 말하며 제공한 것이다. 이 예술계 인사에 따르면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 보낸 것이다. 이 문서는 문화예술계에서 정부가 검열해야 할 약 만 명의 명단으로 구성돼 있다.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눴는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등이다. 실제로 이 자료가 작성된 지난해 5월 이후 예술계 곳곳에서 검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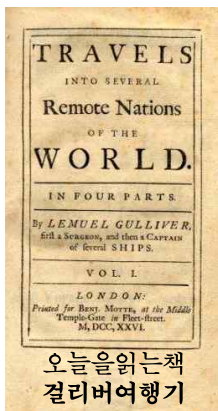
역시 최순실의 힘

한겨레 최순실에 찍힌 문체부 간부 강제퇴직

한겨레 단독보도.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최근 명예 퇴직했다.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을 보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한 후 좌천됐던 인물들이다. 3년 전 ‘정윤희 비선실세’ 논란 당시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명예퇴직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노태강 전 국장은 사퇴 요구를 받으며 ‘누구의 뜻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장관의 율선’이라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그 율선은 누구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서를 검토하던 가운데 ‘노태강’이라는 이름을 봤다. 그리고선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미르재단 직원 평균 연봉은 9200만원

미르재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92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6명 가운데 두 명의 연봉은 1억5천만 원가량이다. 또한 K스포츠재단 직원 28명의 평균 연봉은 7000만 원이었다. 거기에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까지 합하면 직원들의 소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재단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등 여러 신문이 전했다.



오늘을 읽는 책
걸리버여행기

한겨레 최순실 딸, 중국 여행하고 2학점 받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학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6월 이화여대의 계절학기 수업은 중국에서 패션쇼 무대에 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유라는 패션쇼에 서지 않고 결국 2학점을 따냈다. 패션쇼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교육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의 영향력이 행사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정유라는 보디가드로 보이는 남자 2명을 달고 다녔으며, 교수들은 “유라를 잘 챙겨주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한겨레 단독 보도.

한겨레 여전히 최순실 입김이 미치는 승마계

정유라에 대한 승마 특혜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세계승마협회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말 정유라가 대회에 출전한 흔적이 없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일일훈련결과 보고서에는 ‘대회출전’으로 기록돼 있다. 훈련보고서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적혀 있는 셈이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마사회 승마단 감독이었던 박모를 독일에 파견했다. 당시에 독일에 머물던 정유라의 개인교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입김이 여전히 승마계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다.

경향신문 승마협회, 최순실 딸에 50억 지원?

또 지난해 승마협회는 장애물·마장마술·종합마술 분야 선수들에게 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독일 전지훈련 캠프에 선수가 장기간 상주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정유라 씨는 지난해까지 마장마술 국가대표였으며 독일에서 전지훈련을 했다. 승마협회는 선수 한 명 당 말 구입비 40억 원과 전지훈련비 10억 원 등을 책정했다. 선수 한 명 당 50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승마협회는 ‘비선실세’ 논란이 일자 계획을 철회했다.

흔한 보수정권 뺑뺑기

서울신문 “돈 바닥났다. 500억 더 내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창업재단은 최근 은행권에 500억 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했다. ‘재단 재정이 바닥났다’는 게 이유다. MB정부 마지막 해에 줄속으로 만들어진 청년창업재단은 미르재단과 닮은 점이 많다. 18개 시중은행은 청년창업재단에 ‘50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약 4000억 원의 출연금을 재단에 출연했다. 나머지 1000억 원은 올해부터 5년에 걸쳐 나눠서 내기로 했다. 하지만 청년창업재단은 절반인 500억 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앞당겨 집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대기업과 시중은행들은 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청년 희망펀드에 약 1450억 원을 모금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뽕 뜯기 전문 깡패 양아치 정권입니다.

東亞日報 동교동 출신 친박 사기혐의 피소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경재 회장은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하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사업가 엄 모 씨에 따르면 2013년 조카의 취업을 조건으로 김경재 회장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엄 모 씨는 고소와 함께 김경재 회장에게 건넨 수표의 사본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경재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동교동계 출신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박근혜 캠프로 이동했다. 이러려고 그런 모양이다

CJ, '유전자변형' 표기 안 해

'서울신문' GM 미생물로 만든 설탕 대량유통

CJ제일제당은 GM 미생물, 즉 유전자변형 미생물로 만든 설탕 대체감미료를 대량 생산해 상용화했다. 유전자변형 옥수수나 콩 등은 전 세계인이 수년간 섭취해 온 경험이라도 있다. 하지만 GM 미생물로 만든 당은 상용화된 적이 없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GM 미생물의 제한적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규제했다. GM 미생물이 생태와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CJ제일제당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GM 미생물을 활용해 만들었다는 설명은 없다.

참 치졸하고 참 개념 없고

경향신문 "생리대 받아가려면 공개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지침'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생리대가 필요한 청소년이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청서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어내야 한다. 또한 보건소를 방문해 개인정보를 자세히 적고 나서야 생리대를 수령할 수 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무상급식 때 논란이 됐던 '가난의 낙인'이 저소득가구 생리대 지원 정책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성소수자 인격 살인하는 국민일보

국민일보 동성애 박멸한다 해도 이럴 수가...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라며 김유복자 씨의 부고를 실었다. 내용 일부 소개한다. "동성애자이자 한국 최초의 '여장 남자'인 김유복자 씨가 사망했다. 생전의 고인에게에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선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죄악임을 깨달았다. 고인은 이 땅의 모든 동성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했다." 그런데 두 달 전 국민일보 1면에는 김유복자 씨가 병상에 누워 고통 받고 있는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동성애 혐오 기사를 실었다.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 늙고 결국 국엔 비참해집니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말이다. 사실 이분의 병환은 불행한 일이지만 동성애와는 무관한 것이다.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이용해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더니 이번에는 그의 죽음마저 일부 개신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성소수자 문제라는 지극히 예민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면서도 언론의 영향력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노동자가 하는 일이 곧 노동조건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한겨레에 실린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이카데미 주임교수의 "노동자가 하는 일이 곧 노동조건이다"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검찰·노동부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요구 사항을 내세우는 파업만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해왔다. 그런데 법원은 사장 퇴진을 요구한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을 합법적 활동이라고 봤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방송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임금뿐 아니라 방송 내용 자체 역시 노동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공정방송 구현을 위한 최고경영자 퇴진 요구는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 말이 백번 맞는다.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한 사람들 중에서 오로지 임금과 복지 등에 대한 관심만으로 방송사에 취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똑같은 원리를 병원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 곁에서 평생을 보내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노동자들 중에 오로지 임금과 복지 등에 대한 관심만으로 병원에 취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백' 1000만이면 국정원 대선개입 저지할 수 있습니다